

가수 재발전 '리부팅 오디션' 열풍



'골든걸스'의 이은미, 인순이, 박미경, 신효범(왼쪽부터)과, '싱어게인 3' 우승자 홍이삭.

"다시 나를 부른다"
음악 오디션의 흥행과 맞물려 관련 프로그램들의 론칭 기세가 무섭다. 새롭게 선을 보인 MBN '현역가왕'은 지난 9회 시청률 15.2%를 기록했으며, 8090의 감성을 트롯으로 전한 '오빠시대'는 성공적으로 10부작의 종지부를 찍었다. 시청률 17% (6회)를 돌파해 미스터 트롯 등 전작의 아성을 이어가는 TV조선 '미스트롯'도 주목받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의 포맷을 차용하지만, 최근 '리부팅(Rebooting) 오디션'을 통해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 번 대중에게 얼굴을 각인시켰다가 이미지를 쇄신(리부팅)하려 재출연하는 가수들의 면면은 '익숙하면서 새롭다'. 대중은 아티스트의 이색적인 면모를 볼 수 있고, 방송가는 어느 정도 흥행 수확이 되는 연예인을 출연시켜 상업성을 꾀하니 윈윈인 셈이다.

그중에서도 '싱어게인3'와 '골든걸스'는 이러한 포맷을 잘 활용한 프로그램들이다. 지난주 종영한 JTBC 싱어게인3는 콜센터 알바, 파트타임 잡 등을 병행하던 무명 가수 77팀이 출연해 이름을 숨기고 번호로만 경연을 진행했다. 출연 조건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앨범을 이미 세상에 한 번 이상 선보인 적 있는 가수로 제한했다. 프로그램은 방송 내내 화제성을 유지했고 우승자로 홍이삭을 배출했으며, 최고 시청률 8.5%를 기록했다.

아울러 KBS2에서 방영 중인 골든걸스는 국내 정상급 보컬리스트들을 JYP가 프로듀싱해 신규 그룹으로 컴백하는 내용이다. 인순이, 박미경, 신효범, 이은미 등 저마다의 장르, 커리어로 음단에

**'싱어게인'·'현역가왕' 등
잇혀진 가수들 색다른 도전
실력·매력 무대 시청률 보증**

**신인들의 등용문 신선험 해쳐
식상함 등 우려의 시선도**

서 일가를 이룬 이들이 '중년 걸그룹'이 되는 모습은 올드팬들에게도 새로웠을 것 같다.

이 같은 리부팅 열풍이 방송가에 갑자기 불어온 것은 아니다. 지난 22년 방영한 tvN '엄마는 아이들'에는 원더걸스 전 리더 선예를 비롯해 별, 박정아(주얼리), 가희(에프터스쿨) 등 두문불출하던 연예인들이 얼굴을 비쳤다. 물론 대상의 범위를 두고 논란도 있었지만 활동을 중단했던 연예인들에게 재기의 장이 됐다. 측면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가수들이 재출연은 예술가 풀이 좁은 트롯, 힙합 프로그램 등에서 주로 볼 수 있다. '더트롯쇼'나 '미스터트롯', '쇼미더머니', '고등래퍼' 등이 그 일례다. 고등래퍼1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래퍼 김하은(HAON)이 시즌 2에서 눈부신 활약과 동시에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밖에도 '미스-미스터트롯'과 연계해 출연자들이 한 번 더 얼굴을 선보이는 '화요일은 밤이 좋아'도 TV조선에서 방영 중이다. '미스트롯2'에 출연

했던 양지은, 홍지윤, 김태연을 비롯해 김태연, 은가은과 '미스터트롯2'에 나왔던 안성훈, 박지현, 진해성, 나상도, 최수호 등이 콜라보·갈라쇼 등 새로운 무대로 한 번 더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 같은 경연 프로에 대해 시청자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신진 예술가를 발굴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기존 출연자들만 부각해 정작 신인들이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시선도 있다.

'싱어게인3'에는 KBS2 슈퍼밴드 1에 출연했던 58호 가수, 같은 프로그램에서 최종 3위를 기록했던 40호 가수가 '경력직'으로 재출연했다. 또 MBN '보이스킹', KBS2 '새가수', 채널A '보컬플레이' 우승자들을 비롯해 JTBC '팬텀싱어' 위너와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조 격 Mnet '슈퍼스타 K1' 출연자 등이 대거 재출연했다.

물론 '다시 노래한다'(싱어게인)는 취지에 맞춰 재출연한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근 3-4년 이내 주요 프로그램 등에서 우승한 경력자들이 다수 무대에 서면 신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자임하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자칫 신선험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주정민 교수는 "리부팅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아티스트들에게 새로운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면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며 "행여라도 지나치게 시청률을 의식해 인위적으로 기획하는 모습이 보이면 시청자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마.피.아 In the Moring(ITZY), 전이아(영탁), Left & Right(세븐틴), Idol(방탄소년단)...

이들의 공통점은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이 '사워할때 듣는 신나는 노래들'이다. 지난 2021년 미국 유명 패션 매거진 베너티 페어(Vanity Fair)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How Well Does BTS Know Each Other?'(방탄소년단은 서로를 얼마나 잘 알까)라는 제목의 방탄소년단 게임쇼 영상을 올렸다. 이날 진은 멤버들에게 "들었을 때 도저히 춤을 추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노래는?"이라는 퀴즈를 내면서 갑자기 자신의 '사워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했다.

본능'이라고 갈파했다. 한 사람의 성격을 알고 싶으면 그가 지닌 소지품이나 자주 입는 패션 브랜드, 음악 플레이리스트 등을 눈여겨 보라고 조언한다. 10년 간의 연구를 통해 인간은 은연중에 사소한 물건이나 옷차림, 향수, 컬러링 등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대통령의 독서목록이다. 여름 휴가 시즌이면 미국의 언론들은 미국 대통령의 도서 리스트를 앞다투어 소개한다. 휴가기간에 읽을 책 목록을 통해 대통령의 지적 안목과 국정 방향 등을 가능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애독서 10선'이 발간되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대통령 리스트'들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쳤고 김대중 대

'타인의 취향'을 좋아하세요?

당시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시청한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너도 나도 '사워 플레이리스트' 속 노래들을 찾아 들으며 스타의 '내밀한' 취향을 공유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이처럼 스타들의 소소한 일상은 팬들에게는 흥미로운 '뉴스'다. 평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책을 즐겨 읽는지, 무슨 음악을 자주 듣는지 등 모든 게 궁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TV 예능 프로그램에 입고 나온 '오빠'의 옷은 어떤 브랜드이고 가격은 얼마인지 순식간에 손빠른 팬들의 검색으로 밝혀진다. 한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임운찬, 조성진, 손열음 등 유명 연주자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하는 클래식 전용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미국의 심리학 박사 샘 고슬링(Sam Gosling)은 자신의 저서 '스누브(Snoop, 상대를 꿰뚫어 보는 힘)'에서 '인간의

경과 문재인 대통령의 독서 목록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매년 이맘 때면 설레는 마음으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이들이 많다. 흑여작심삼일로 끝날 지언정 새로운 한해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으며 마음을 다잡는다. 근래 일부 MZ 세대를 사이에서 뺄잡아 서점, 유명 전시회 등을 '순례'하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하지만 타인의 취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는 경계해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스타나 유명인들의 '리스트'에만 맞춘다면 진정한 버킷리스트가 아닐 터. 올해는 타인의 추천이 아닌, 자신의 취향을 살린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꾸미자.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나들이는 필수다. 취향은 오랜 경험의 축적이기에. <문화·예향국장, 선임기자>

임방울 국악교실서 우리 소리 배워요

다음달 13일부터 수강생 모집

(사)임방울국악진흥회(진흥회)는 '2024 임방울 국악교실' 수강생을 2월 13일부터 방문 및 전화로 모집한다.

강의는 판소리시인체험장(빛고을아트스페이스 6층)에서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 간 진행할 예정이다. 판소리, 민요, 한국무용을 비롯해 고법장고, 가야금병창 등 5개 과목에서 강좌별 20명 이상씩 모집한다. 수업은 주 1회 2시간씩 진행한다.

진흥회 담당자는 "국악의 생활화를 통해 국악 인구의 저변 확대와 체험의 기회가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강료 월 1만 원. /최류빈 기자 rubi@



지난해 '임방울국악교실 송년한마당' 공연. <임방울국악진흥회 제공>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정교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자·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2 전문인력(현정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정교사가 파견

3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 인자·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정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보편적교육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Regional Office Center for Children

복권위원회

사랑의열매
Share the Love